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2. 5. 2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이란산 원유 20% 감축”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
(’12.5.22일자 헤럴드경제 종합 1면, 경제 6면 등)

1. 기사내용

- 22일 지식경제부가 파악한 ‘국내 정유사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’을 보면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올 1월부터 6월 까지 이란산 원유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1만9,000배럴 감축한 총 3,413만3,000배럴을 수입했음.
- 두 회사의 수입물량은 월별 수입물량이 들쭉날쭉하다가 5~6월 물량을 대폭 감축한 것은 미국정부가 요구한 20%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금년 4월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은 현재 석유공사에서 집계중이며, 5월과 6월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현재, 정부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, 이란 제재로 인한 국내석유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.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미주협력과 정종영 과장 (02-2110-5381)
최성준 사무관 (02-2110-5384)
석유산업과 문신학 과장(02-2110-4890)
오충중 서기관(02-2110-5454)